

 금융위원회	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<h1>보 도 반 박 자 료</h1> </div>				
 금융감독원	보도	배포 시	배포	2021.12.28.(화)	

책 임 자	금융위원회 보험과장 이 동 엽(02-2100-2960)	담 당 자	노 소 영 사무관 (02-2100-2962)
	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 양 해 환(02-3145-7460)		조 한 선 팀 장 (02-3145-7466)

제 목 : 실손보험 인상률 및 ‘보험료 이원화’ 등 관련 보도된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.

[조선일보 12.28일자 보도에 대한 반박]

1. 기사내용

☐ 조선일보는 12.28일 「제2의 건보 ‘실손보험’…2730만명 보험료 내년엔 16% 오른다」 제목의 기사에서

- ① “내년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률이 가입시기에 따라 평균 9~16%로 정해질 예정이다.”
- ② “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료 인상률을 보험업계가 요청한 수준의 60%로 조정하라는 ‘의견’을 제시했다.”
- ③ “금융위는 내년 이후 실손보험 보험금을 받아간 고객의 보험료는 많이 올리고,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고객의 보험료는 적게 올리는 ‘보험료 이원화’ 제도를 추진할 예정이다”라고 보도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

- ☐ 금융위가 업계가 요구한 수준의 60%로 실손보험료 인상률을 조정하라고 의견을 제시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.
- ☐ 또한, ‘보험료 이원화’ 등의 명칭은 금융당국에서 언급한 바 없으며, 제도 방향성도 정해진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 변 인
prfsc@korea.kr

